

## 농심과 소비자 그리고 우리농산물



**황 해 룡**  
한국농어민신문 이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타결은 우리 농업사에 획기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다 이는 것처럼 개방을 전제로 한 다자간 협상이었다. 따라서 각국의 의회비준과 정부간 조인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일단 협상자체의 틀은 변경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도 점차 개방의 시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선 내년부터 우리의 주식인 쌀이 35만톤씩 의무적으로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그 밖에 현재 수입되고 있는 기존의 농산물들도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되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개방이라는 말을 아무 부담없이 사용하고 있다. 국제화라는 단어의 수식어로 개방이라는 단어가 스스럼없이 쓰여지고 있다. 실제로 단어 그 자체로 보면 개방이라는 말은 대단히 좋은 의미의 단어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해서는 결코 좋은 의미만은

아닌 점에 우리는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우리 대문을 활짝 열고 외국의 농산물을 여과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개방의 상황에 대하여 무감각 상태에 빠져있지 않나 하는 우려이다. 이는 아직 우리가 본격적인 개방의 상황을 맞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기우를 떨쳐 버릴 수 없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15일 이전까지만 해도 전국은 온통 별집을 쭈셔 놓았던 것처럼 시끄러웠었다. 그후 불과 반년도 못되어 그때의 우려는 어디에 갔는지 긴박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분위기이다. 물론 안이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매일 데모나 하고 투쟁의 대열에 나서야 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 협상자체는 끝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줄 개방의 시대는 지금부터이기 때문에 최소한 긴장감은 풀지 말아야 할텐데 농촌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동안 농민들은 무엇을 했던가. 봄이 돌아 왔으니 좋은 싫든 씨뿌리고 모종심는 것에 열중이었다. 개방이니 국제경쟁력이니 하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외중에도 농민들은 모내기에 열중이었던 것이다. 지방출장중에 골짜기 골짜기 마다 노는 땅 한 필지 없이 고추며 감자며 담배를 심어 놓은 것을 보고 아! 이것이 농심이구나 하는 것을 뼈속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뒤끝이야 어떻게 될지라도 씨뿌릴 때가 됐으니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농심

이 있기에 우리의 농업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농민에 대한 외경심이 절로 나오기도 했다.

농민들의 그러한 농심 이면에는 자신들이 열심히 본업에 열중하는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농어촌발전위원회 마저도 각자 자기 입장 추스리느라고 농심과 관계 먼 안을 내놓고 말았다.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자신들의 빠져 나갈 명분은 확보했지만 그것이 농어민, 농어업, 농어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현상화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는 헤아리지 못해 앞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이로써 끝난 것은 아니다. 농발위야 7월말로 임무를 끝내고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업장으로 돌아 가면 되겠지만 농심은 계속 농어촌 현장에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결국 자신들의 장래는 자신들이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곱씹으면서 새롭게 내일을 설계해야 하게 되었다.

문제는 또 없는 것이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의 대응인식의 문제도 심각하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를 극복하는 최상의 구호로 신토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 많은 농어민이나 농정 당국자들이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심정적으로는 소비자들을 한없이 우리농산물 쪽에 붙들어 두고 싶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농협이나 많은 농민들의 인식이 맛있고 좋은 농산물만 생산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기대마저 허무를 필요는 없겠지만 신토불이가 농어민의 본질적 생존전략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농산물보



다 맛있는 외국의 농산물이 무수히 많고 품질은 더 더구나 우리가 뒤쳐져 있는 실정임을 명백히 인식한 선에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역사는 사실 대단히 짧다. 더욱이 농어민들은 자본주의의 본질 혹은 생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정이 이러 한데 어떻게 자본주의 방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농산물 수출강대국의 압력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가격경쟁력없는 농산물은 앞날이 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신토불이처럼 소비자들의 심정에 호소하는 현재의 전략은 앞으로 수년까지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나 소비자들이 우리농산물이라는 명분에 얽매어 있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인식해서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농산물이 국제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맛과 상품의 질은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